

전동킥보드 속도 줄이니 보행자 안전 ‘성큼’

■ 광주 첫 PM 속도제한구역 시행 한달

수완지구 학원가 위법 운행 등 감소…주민 호응 광산경찰·지자체·업체 협업 성과…체감도 상승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이 시행되자 보행자 안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PM 속도제한구역 시범 운영에 들어간 광주 수완지구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변화된 풍경이다. 4일 찾은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 학원가. 한때 인도를 가로지르며 보행자를 위협하던 전동 킥보드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고, 보행자들 역시 뒤를 돌아보며 긴장하던 모습 대신 비교적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다. 전동 킥보드가 사람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장면도 거의 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광산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법 운행 근절을 목표로 3월까지 추진 중인 속도 제한 시범사업과 집중 홍보·계도 활동의 효과로 풀이된다. 광산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완지구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PM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수완지구는 학원가가 밀집해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 보행자·차량·전동 킥보드가 뒤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무면허

운전과 보도 주행, 과속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광산경찰은 지자체, 공유 킥보드 업체 2곳과 협력해 광산구 내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약 3300대를 대상으로 속도 관리와 반납 질서 확립, 위법 운행 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광주권 최초의 PM 속도제한구역 운영 사례다.

속도제한구역은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 두 개 구간으로, 수완현진에버빌 106동 앞에서 한양수자인 103동 앞까지 약 750m, 수완롯데마트에서 솔빛육교까지 약 660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 진입하면 GPS 기반 시스템을 통해 최고속도가 기존 시속 25km에서 18km로 자동 제한된다.

경찰은 속도 제한 이후 과속이 어려워지면서 보도 주행과 무리한 추월이 줄었고, 무면허 운전자도 자연스럽게 감소했

다고 설명했다. 현장 계도 과정에서도 위험 주행 사례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사고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는 점”이라며 “학원가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특히 체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반납 질서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속도제한구역 내에는 PM 반납제한구역(지정주차제)이 함께 시행돼 외곽에 지정주차구역 8곳이 운영 중이다. 지정된 공간 반경 2.5m 이내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해 인도와 횡단보도 주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던 전동 킥보드가 크게 줄었다.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도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민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민 A씨(40대)는 “아이들 사이로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가던 장면이 거의 사라졌다”

며 “인도에 세워진 킥보드 때문에 돌아가야 했던 불편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광산경찰 수완지구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무면허 운전과 보도 주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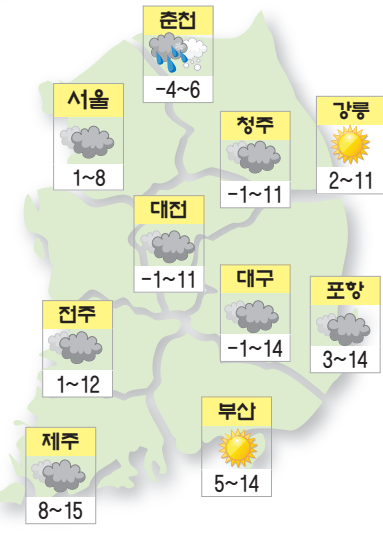
경찰은 시범 운영 종료 후 위법 운행 감소 여부와 보행자 사고 변화, 주민 체감도를 종합 분석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광열 광산경찰 수완지구대장은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지만 보행자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7:29	달달	21:40
☁️	예보	18:05	달달	09:12



광주	☁️	2~13
목포	☁️	3~8
여수	☁️	4~12
순천	☁️	1~14
구례	☁️	1~13
광주	☁️	0~12
임도	☁️	3~12
목신도	☁️	7~11
전남	☁️	0~14
진도	☁️	4~10

목포	밀물(고)	04:18 / 16:49
	썰물(저)	09:30 / 21:57
여수	밀물(고)	11:27 / 23:41
	썰물(저)	05:04 / 17:25

기사 때리고 택시 뺏은 공무원

마네편 ○-만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순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순천경찰은 준강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천시 A과장(56)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A과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승차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 기사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그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3km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택시를 주행한 뒤 그대로 잠든 A과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A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는 A과장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

광주 동명동 신축 행정복합센터 9일 개방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광주 동구 동명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9일 문을 연다.

4일 동구에 따르면 동명동 80-15(동계천로 172) 번지에 건립 중인 ‘동명동 행정 복합센터’가 오는 2월9일부터 시민 편의 공간으로 개방된다.

지난 2023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행정 복합센터는 부지면적 1794.6㎡(연면적 3244.83㎡)에 총사업비 141억원(국비 28억원·시비 13억원·구비 100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들어서며, 2층에는 동명건강센터, 3층에는 동대본부, 마을사랑채, 다목적실 등이 배치된다. 지하 1~2층은 주차

장, 창고, 기계실이 마련된다.

개청식은 마을사랑채 내부 공사를 마무리한 뒤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49㎡ 규모의 기존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동명동 156-4)는 을 상반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며, 서석동 동구벤처빌딩 1층에 있는 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가 사용한다.

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는 취업 알선·자원봉사활동 지원,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옛것 속에서 가치를 찾아 문화가 빛이 되고 추억의 감성이 솟는 동명마을로 거듭나고 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여수해경, 해양사고 예방 총력 여수해양경찰이 최근 대형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수해경은 특별관리기간 동안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 해양사고 대비·대응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사진제공=여수해경

광주·전남 1월 평균기온 1.1도…8년 만 ‘강추위’

2018년 이후 평년 기온 밑돌아…북극 찬 공기 영향

올해 1월 광주·전남의 평균 기온은 8년 만에 평년보다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1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1.7도)보다 0.6도 낮았다. 이는 2018년(0.2도) 이후 8년 만에 평년을 밑돈 수치로, 지난해(2.1도)와 비교해도 1도 낮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1월 하순 우리나라에 북극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추위가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부근 베링해에서 블로킹(거대한 고기압이 대기 흐름을 막아서는 현상)이 발달하며 찬 공기 남하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순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낮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일시적으로 4월 평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이 기간 보성군(18.3도)과 고흥군(17.8도)에서는 1월 일 최고기온 극값

을 경신했다.

1월 중 광주·전남 일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15일(10.2도), 가장 낮았던 날은 22일(영하 4도)로, 기온 차는 14.2도로 달랐다.

강수량은 5.6mm, 강수일수는 3.4일로 모두 평년보다 적었다. 특히 여수에서는 한 달 동안 강수량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습도는 61%로, 관측 이래 하위 3위를 기록했다.

1월 하순 북극 찬 공기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도 점차 하강해 최근 10년 평균(7.1도) 수준을 보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사지 등 통행로 통제

내달까지 총 2개 구간

월출산국립공원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에 출입금지(통제) 조치를 내렸다.

출입금지 구간은 총 2구간으로 구름다리 중점부~사자봉~경포대 능선 삼거리(1.2km)와 천황사지~구름다리 팔각정(1.0km)이다. 다만 바람폭포삼거리~구름다리 구간은 출입 가능하다.

조치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이며, 향후 기상·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월출산사무소(061-473-5210)에 연락하면 된다.

월출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겨울철 산행 전에는 기상 상태와 적설량, 기온 변화를 확인한 후 방한용품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지난 1월 10일 오후 12시6분 여수시 중흥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과 산불진화대가 불을 끄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소방

전남, 올 들어 4일에 한 번꼴 산불…불씨 주의보

1월 8건 발생…진화대원 부상·주민 긴급 대피도 일상 부주의·장기 건조화 여파…피해 면적 확대

올해 1월 전남에서 산불이 8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에 한번꼴로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겨울철 산불이 일상화되면서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산림청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상당수는 담배꽂초, 작업 중 불씨, 생활 쓰레기 소각 등 일상적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30분께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2시간

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됐다. 이 불로 주민 601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1동이 전소됐으며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8ha에 달했다.

겨울철 산불이 늘어나는 원인은 기후 변화에 따른 건조 기간의 장기화가 가장 먼저 꼽힌다.

과거에는 겨울철 강설과 잦은 강수로 산림 습도가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눈과 비가 줄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한기 작업, 예초기 사용, 쓰레기 소각 등 생활형 화기 사용이 겨울철에도 줄지 않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산림청이 집계한 최근 10년간(2016~2025년) 광주·전남 지역 1~2월

평균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1월 3.3건, 2월 5.3건으로 나타났다.

산불이 집중되는 3월(7.9건)과 4월(6.4건)보다는 적지만, 겨울철임을 감안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치다. 특히 1~2월 산불 발생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6건에서 2022년 17건, 2023년 18건으로 급증했다. 다행히 2024년 5건으로 줄었지만 이듬해 다시 11건으로 경증 뒤했다.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 면적은 2016년 1.73ha(광주 0.03ha·전남 1.70ha)에서 2024년 12.15ha(광주 4.91ha·전남 7.24ha)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4.29ha(광주 0.43ha·전남 23.86ha)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체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진화

대를 고정 배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응은 사후 진화에 집중돼 있고, 예방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이 나는 횟수뿐 아니라 한 번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겨울 산불을 별도의 위험군으로 관리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드론과 지능형 CCTV를 연동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민가와 주요 시설물 주변 25~50m 이내의 입목 관리, 불에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는 내화수림대 조성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겨울 산불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